

향군,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기금 모금 전개

6·25 미 참전용사 냇 기려... 회원 당 1달러 이상 모금

미국 워싱턴에 6·25 참전용사들의 냇을 기리기 위한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향군은 10월15일부터 본격적인 모금 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추모의 벽' 건립 모금은 김진호 향군회장이 지난 8월말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참전비와 베트남전참전비에 참배·헌화하면서 베트남참전비와는 달리 한국전참전비에는 전사자 명단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던 차 한국전참전기념공원재단(KWVMF)의 '추모의 벽' 건립 추진 사실을 알고 모금 운동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추진됐다.

김진호 회장은 지난 8월 미국재

향군인회 100차 총회 축하 연설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추모의 벽' 건립에 향군이 앞장섬으로써 감사의 마음이 전해져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170만 참전용사와 그 가족, 후손들과 1953년 휴전 이후 한국근무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350만 주한미군전우회(KDVA) 회원들에게도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은 한국전참전기념공원재단과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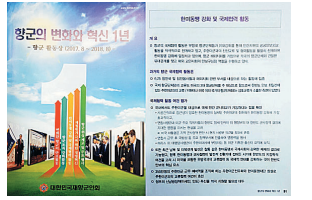
교민들이 공동 발의하여 2016년도에 설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공원 내 추모의 못 주변에 둘레 50m, 높이 2.2m의 원형유리벽을 설치하여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 3만 6천여 명과 카투사 전사자 8천여 명의 이름을 새겨 넣을 계획이다.

한국전참전기념공원재단에 따르면 '추모의 벽' 건립 예산은 한화로 약 280억원으로 현재까지의 모금액은 약 5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미 연방 기념사업법에 의하면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85%를 사전 모금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군의 '추모의 벽' 건립 모금은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연말까지 150만 향군 정회원 1인당 1달러 이상 모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뜻이 있는 기업이나 국민들에게도 문호를 열어두기로 했다. 모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모금 전용계좌(우리은행 1006-701-488707, 국민 801737-04-010172, 농협 317-0015-2392-17 재향군인회)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까지 모금된 금액은 '추모의 벽' 기념재단에 전달 할 계획이다.

향군의 '추모의 벽' 건립 모금 운동은 지난 9월6일 김진호 회장이 미서부지회 간담회에서 최초 제안했다. <관련기사 2면>

향군, 한글 사랑 앞장



향군은 우리나라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로서 나라사랑은 물론 고유의 우리글인 한글사랑에도 앞장을 서고 있다.

김진호 회장이 취임하면서 시작된 한글사랑 운동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우리 고유의 글인 한글을 생활화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한글 전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시작했다.

모든 행정 문서 한글 전용
고운말 사용 캠페인도 전개

이에 따라 향군은 모든 공문서를 비롯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한문이나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그동안 국한문 혼용을 해왔던 공문서, 보고서, 개인명함, 간판 안내표지판 등을 모두 한글로 바꾸고 한문으로 발간했던 향군회원 명부와 본보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도 한글전용으로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향군은 한글 사랑과 함께 고운말 사용 캠페인도 전개, 전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고 있다.

김진호 회장, 국방장관 만나 안보현안 논의



정경두 국방장관과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김진호회장

김진호 회장이 10월23일 국방부를 방문, 제3차 남북정상회담 군사분야 합의 내용 중 "남북 간 군사

적 충돌이 빈발했던 서해 NLL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근원적으로 우발적 충돌이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향후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시 NLL 고수를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999년 6월15일 제1차 연평해전을 직접 지휘했던 합참의장으로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서해 NLL지역은 항상 우발적 무력충돌이 잠재해 있고 그간의 발생한 남북 쌍방 간 무력충돌의 빈도로 볼 때 확전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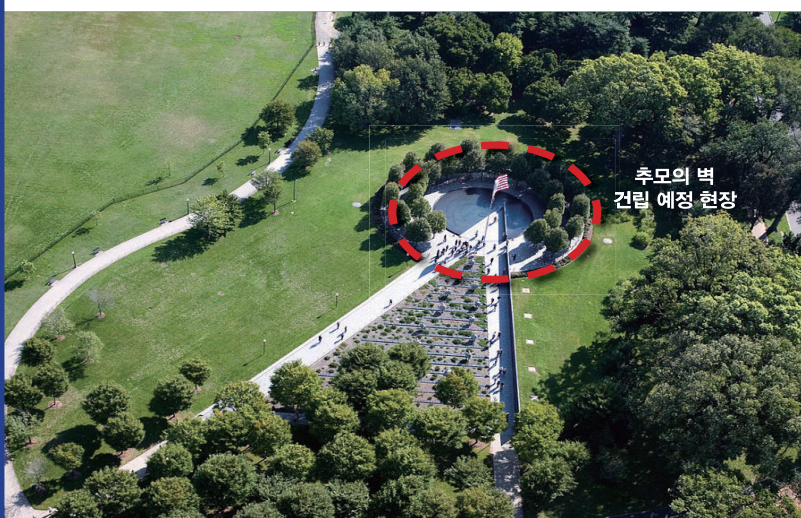
서해 NLL 완충지역 설정 긍정평가 전작권 전환 시기 오해 없도록 홍보

초하여 국내외적 안보상황 평가 후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잘못 알려져 국민들이나 미국의 군 관련 주요 인사들까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알리는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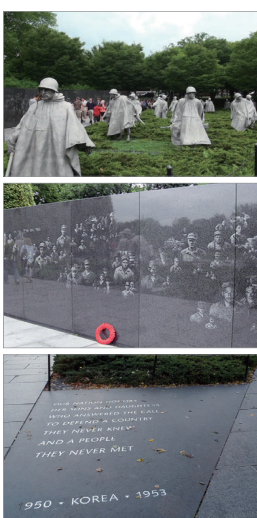
아울러 "올해 SCM 50주년을 맞아 한미양국 국회에서 통과 예정인 '한미동맹 강화 지지결의안' 등 워싱턴에서 실시되는 각종기념행사의 내용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여 한미동맹이 강화 되는 계기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모의 벽' 건립 성금을 보내주세요

■ 2018.12.31까지 ■ 향군 정회원, 현역장병, 기업, 단체, 전국민 대상



추모의 벽 건립 예정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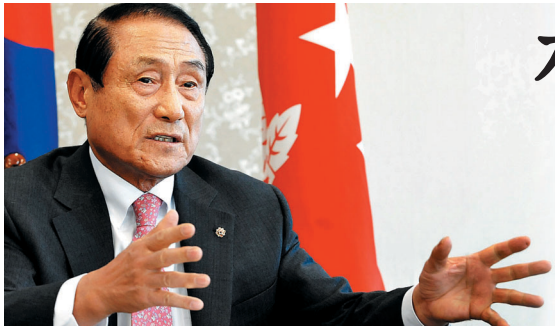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내에 '추모의 벽'을 건립하여 70여년 전 6.25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미군 3만 6천명 카투사 8천명의 이름을 새겨 넣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 참전 영웅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입니다. 명분 있는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요.

모금 계좌 안내

우리 1006-701-488707
국민 801737-04-010172
농협 317-0015-2392-17

• 예금주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문의 : 02) 417-5886



자유 지켜낸 미 참전용사 희생 영원히 기억해야

‘추모의 벽’...170만 6·25 참전용사 자긍심 고취 및 한미동맹 강화하는 것

김진호 회장이 한국전쟁 미참전용사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하며 10월22일 국방FM ‘국방광장’ 인터뷰를 통해 그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 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편집자 주>

10월15일부터는 미국 워싱턴에 세워질 ‘추모의 벽’ 건립 모금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추모의 벽 건립사업은 어디에서 어떤 취지로 시작이 된 건지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다면?

추모의 벽 건립사업은 미국의 한국전쟁기념공원재단과 한국 교민들이 공동 발의하여 2016년도에 설치 법안이 의회에 통과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업은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주저 없이 전쟁터로 달려 나와 평화와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한국전쟁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진 되고 있으며 공원 내 추모의 연못 둘레 50m, 높이 2.2m의 원형 유리벽을 설치하여 이분들의 이름을 새겨 넣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세워지게 될 추모의 벽에는 미군참전용사 몇 분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나요?

당시 미군 170만 명이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3만 6천여 명과 미군과 함께 작전하다 전사한 카투사 전사자 8천 명 등 약 4만 4천여 명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조건은?

한국전쟁기념공원에 의하면 추모의 벽 건립 예산이 2,500만 달러, 한화로 약

28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미 연방 기념사업법에 의하면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85%를 사전 모금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85%를 사전 모금해야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얼마나 모아졌습니까?

우리나라 민주 평통에서 20만 달러를 기부한 것을 포함하여 44만 달러, 한화로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몇 차례 관심표명을 하시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향군인회에서도 국내에서 추모의 벽 건립 모금 운동을 전개 하고 있는데.. 15일부터 시작이 됐죠? 어떻게 동참을 하게 됐습니까?

재향군인회는 10월15일부터 본격적으로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추모의 벽 건립에 안보단체인 향군이 앞장섬으로서 우리의 고마워하는 마음이 전해져서 170만 한국전쟁참전용사와 그 후손들과 1953년 휴전 이후 한국근무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온 350만 주한미군 전우회 회원들에게 자

긍심을 고취시키는 물론 혈맹관계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말부터 약 2주간, 미국재향군인회 100차 총회 축하 연설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 내 안보관련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등 방미활동을 하면서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비와 베트남전참전비에 현화를 했는데 500여 미터 떨어진 베트남참전비와는 달리 한국전 참전비에는 전사자 명단이 없는 것을 보고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방문 당시 현지에서도 모금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날인 9월 초에 향군 미국 서부지회 안보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국전쟁기념비에 현화하면서 느꼈던 저의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 하고 모금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임원 및 회원들이 즉석에서 자발적으로 5천달러, 한화약 560만원을 모금하여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비로 1천만 원을 기탁하기로 약속하고 귀국해서 기탁했습니다.

그럼 지금 추모의 벽 건립 모금운동은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 되고 있나요?

추모의 벽 모금운동은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향군은 금년 연말 까지 정회원 약 150만 명을 대상으로 1인 1달러 이상 모금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기업이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많은지요?

10월 초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추모의 벽 모금 운동 전개에 뜻을 공론화 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향군의 참전 친목단체와 본회의 경우는 앞서 제가 방미활동 결과를 전파하기도 해 모두가 동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몇 차례 관심표명을 하시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향군의 이 사업추진계획을 전해들은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10월 5일 금일봉을 보내 왔으며, 향후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 기다리겠습니다.

추모의 벽 건립 성금 모금운동... 보름만에 4천만원 돌파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지난 10월15일부터 본격적인 모금을 시작한 향군은 15일만에 4천 500여 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성금 중에는 김진호 회장이 기탁한 1천만원과 미서부지회에서 미리 모금했던 5천달러(한화 560만원)를 포함하여 향군본부 임직원, 산하업체 임직원, 시도 및 시군구지회, 참전·친목단체, 일반 회원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금일봉을 보내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약속하였으며 90 노병들의 모임인 육종전우회, 포병전우회, 갑종장교 7기 동기회 등도 모금에 힘을 보탰다.

일반 회원중에는 대보공원 박영두 대표와 민철기씨가 각각 100만원, 이옥란씨가 30만원 등 고액을 기탁했으며 많은 분들이 적게는 1달러(1,200원)에서 10만원까지 따뜻한 정성을 모았다

‘추모의 벽’ 건립 성금을 내주신 분들

□정부기관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금일봉, 정경두 국방부 장관 금일봉

□향군본부 : 김진호 향군회장 1천만원
임 직 원 : 2,180,000원

배상기 300,000원, 권영학 300,000원, 이영호 300,000원, 차도영 100,000원, 황동규 100,000원, 한정재 100,000원, 김태선 100,000원, 박광석 100,000원, 이종완 50,000원, 배명우 50,000원, 김종록, 50,000원, 윤종득 50,000

원, 이영대 50,000원, 이상영 50,000원, 최경선 50,000원, 정진천 50,000원, 김광채 50,000원, 경영본부 8명 120,000원, 장영은 30,000원, 정미란 30,000원, 오은성 30,000원, 송승규 30,000원, 강석구 20,000원, 박재천 10,000원, 윤성천 10,000원, 정선희 10,000원, 김수나 10,000원, 양종호 10,000원, 조윤현 10,000원, 홍유미 10,000원

□향군 산하업체 : 12,025,000원
산하업체 사장단 일동 1천만원 / 추주호

관광선 500,000원 / 향우실업 440,000원 / 통일전망대 400,000원 / 향우산업 - 680,000원 (허재수 500,000원, 정부교 50,000원, 박재성 50,000원, 배상원 50,000원, 임희정 10,000원, 정해현 10,000원, 문숙정 10,000원) / 향군타워 - 장영호 5,000원

□향군 각급회 : 9,050,700원

서울 - 조필용 30,000원
경기 - 경기도 향군 1,020,000원
대전 - 총남 -박재은 100,000원, 이광표 10,000원, 박창용 10,000원, 김애란 10,000원
경북 - 이종혁 100,000원, 이혁재 1,200원, 양정석 20,000원, 서정오 10,000원, 김광우 5,000원, 강점석 5,000원, 최두영 5,000원, 전지연 2,500원, 김연옥 2,500원, 보각수 1,200원, 김수광 1,200원, 김근태 1,200원, 천정웅 1,200원, 이장우 1,200원, 남진호 1,200원, 장성용 1,200원, 김충남 1,200원, 유용기 1,200원, 권위득 1,200원, 추옥창 1,200원, 김경창 1,200원, 정만원 1,200원, 김영대 1,200원, 남병근 1,200원, 김종락 1,200원, 윤문걸 1,200원, 조수환 1,200원, 차상구 1,200원, 남종규 1,200원, 남병업 1,200원, 김인수 1,200원, 김수열 1,200원, 박기복 1,200원, 이수춘 1,200원, 박형일 1,200원, 김재성 1,200원, 황영옥 1,200원, 이순자 1,200원, 천소영 1,200원

제주 - 김달수 2,000,000원
미서부지회 5,000달러(한화 5,683,500원)

□참전친목단체 : 2,770,000원

육종전우회 1,800,000원, 포병전우회 770,000원, 갑종7기 이용택 회장 200,000원

□일반회원 : 3,942,004원

박영두(대보공업) 1,000,000원, 민철기 1,000,000원, 이옥란 300,000원, 윤희진 200,000원, 조형호 100,000원, 서보암 100,000원, 김진의 100,000원, 손상호 100,000원, 박기경동맹희생추모 100,000원, 한은섭 100,000원김영애 50,000원, 박오현 50,000원, 이만철 50,000원, 백성도 50,000원, 최민준 50,000원, 최민석 50,000원, 김운섭 50,000원, 이상주 50,000원, 이선영 50,000원, 박인근 50,000원, 유석형 30,000원, 이갑인 30,000원, 최인숙 30,000원, 이상봉 30,000원, 서현택 20,000원, 윤경희 20,000원, 김태현 20,000원, 박성운 20,000원, 박용호 20,000원, 김태수 10,000원, 조상희 10,000원, 배윤성 10,000원, 이철호 10,000원, 서석준 10,000원, 김용태 10,000원, 이미옥 10,000원, 김영욱 10,000원, 김성수 7004원, 이윤정 6,000원, 도현식 6,000원, 김순홍 6,000원, 이창규 6,000원, 손경근 6,000원, 조주호 5,000원

향군 창설 66돌... 정부 비핵화 정책 뒷받침

김진호 회장 “주인의식 갖고 새 향군 건설위한 노력” 당부



10월30일 열린 제66주년 향군의 날 기념식에서 향군은 유공회원과 우수단체에 훈·포장을 전수했다.

제66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이 10월30일 향군본부 중회의실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본부 임직원, 여성회원, 산하업체 임직원, 훈표장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진호 회장은 이날 “향군은 지난 66년 동안 북한의 도발이나 안보위기가 있을 때 마다 국가안보의 제2보루로서 중심적 역할을 해온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향군 재건에 매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지금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국가의 존

망이 걸린 문제이므로 이념논리나 여·야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훈포장 수여에는 김명열 전 강원도 향군회장에 국민훈장을 박연하 경남 하동군 향군회장 외 2명에게 국민포장이 주대진 전라북도 향군회장 외 9명에게 대통령 표창이 전수됐다. 또 인천광역시 향군 및 전라북도 향군 여성회 등 11개 단체가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여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향

군대회장을, 전국재해구호협회 김정희 사무총장에게는 향군 공로회장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조선대학교 윤채용 학생 등 20명에게 향군장학금 100만원씩이 각각 전달됐다. 향군 장학금은 참전자 후손이나 향군 정회원 자녀로 학업이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지급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15일부터 30일까지 모금한 성금이 전달돼 의의를 더했다.

향군은 연말까지 적극적인 모금운동을 펼쳐 모금액을 ‘추모의 벽’ 건립 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임원과장, 정미란(본부 행정과장), 김현종(본부 총무과장), 김한기(본부 전산개발차장), 임환호(본부 사업관리차장), 최경선(코나스 취재기자), 유창상(전남 구례군 사무국장), 정선기(경기도 향군 감사), 김명동(서울 노원구 향군 사무국장)

장관표창
김태종(경북 구미시 향군 공군부회장), 오미정(경남 거창군 향군 행정과장), 김현숙(강원 춘천시 향군 사무과장), 이완복(충북 향군 이사), 민순남(경북 영천시 향군 여성회장), 장성국(광주·전남 향군 직능대표), 장영은(본부 의전과장), 박여진(본부 회의과장), 이숙경(본부 인터넷안보부장 대행), 이화수(경남 고성군 향군회장), 이옥성(전남 영광군 향군회장), 고대현(본부 경리과장), 송필근(본부 복지차장), 유남조(전북 향군 해병부회장), 노해경(인천 연수구 향군 행정과장), 신준수(전북 완주군 향군 여성회장), 황혜영(강원 양양군 향군 사무과장), 이미정(전남 해남군 향군 여성회장)

제66주년 향군의 날

향군 도약의 주역들 ... 포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 단 체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향군, 전라북도 향군 여성회, 강원도 양양군 향군, 전라북도 정읍시 향군, 경기도 남양주시 향군, 광주광역시 남구 향군

국무총리표창

경남 울산시 향군, 충청북도 청주시 향군, 전라남도 곡성군 향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향군, 경상북도 고령군 향군

장관표창

캐나다 동부 향군, 미국 동부 향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향군, 강원도 태백시 향군

■ 개 인

국민훈장

김명렬(강원도 향군회원)

국민포장

박연하(경남 하동군 향군회장), 박찬홍(인천 남동구 향군회장), 박래혁(본부 참전복지부장)

대통령표창

주대진(전북 향군회장), 윤주환(광주·전남 향군 사무처장), 기도서(전남 순천시 향군회장), 선창영(강원 양양군 향군회장), 김삼용(부산시 서구 향군회원), 김종록(본부 업무감사관), 엄춘광(본부 예산차장), 오상억(경기 양주시 향군 사무국장), 오재신(인천 계양구 향군회장), 김대영(전북 임실군 향군회장)

국무총리표창

채창수(전북 전주시 향군회장), 김윤철(경남 합천군 향군회원), 이왕호(본부 안보대응차장), 박민서(본부

향군-주한미군전우회 MOU

“한미동맹 강화위해 함께 노력하자”



월터 샤프 주한미군전우회장이 10월5일 본회를 방문, 김진호 회장을 예방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기로 했다.

방한 중인 월터 샤프 주한미군전우회장(전 한미연합사령관)이 10월5일 본회를 방문, 김진호 회장을 예방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기로 했다.

이날 샤프 회장과 김진호 회장은 혈맹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카운터파트너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할 것 ▲상호 유대강화를 위해 매년 상호교류를 실시 할 것 ▲주한미군전우회 회원 확보 및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진호 회장은 “한반도 비핵화

만큼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며 양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동맹재단(Korea-US Alliance Foundation) 정승조 회장(예 대장, 전 합참의장)도 자리를 함께해 한미동맹 활동 간 향군과 병행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주한미군전우회(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는 주한미군, 한미 연합사, 카투사에서 근무한 한국미군장병 3백만명을 대상으로 ▲주한미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주류사회에 목소리를 전달하며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승계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해 5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창립했다.

이임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에 향군대회장

향군활동 지원, 완벽한 연합방위태세·효율적 동맹 관리



김진호 회장은이임하는 브룩스 사령관에게 향군 최고의 휘장인 향군대회장을 수여했다.

김진호 회장은 10월12일 오전 8시 30분 용산 한미연합사를 방문, 이임하는 브룩스 사령관에게 향군 최고의 휘장인 향군대회장을 수여하고 지난 2년간 완벽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효율적인 한미동맹 관리를 통해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북핵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연합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군사적으로 이를 잘 관리하여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한 데 대한 감사인사도 전했다.

UN 전몰장병 추모, 자유 평화 수호 정신 기려

제73회 유엔의 날 기념행사, 부산시 향군 임직원 참석



김진호 회장 명의의 화환을 올리고 참배하고 있는 부산시 향군.

제73회 유엔의 날 기념식이 10월 24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 UN기념공원에서 열렸다. UN창립과 한국전 참전 UN군 전몰장병을 추모하고 자유와 평화 수호의 UN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이 날 행사에는 6·25전쟁 유

엔참전국 외교사절, 국내 참전용사 후손, 육·해·공군 장병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개국 안장국 국기입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헌화, 조총 및 묵념,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부산광역시 향군(회장 김정웅)도

이날 50여명의 임직원이 UN기념공원 상징구역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여 김진호 회장 명의의 화환을 전수하고 유엔 참전용사들의 위훈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 한국외대에서 수학 중인 참전용사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피란수도 부산투어' 행사가 열렸으며 이들은 피란수도 시절의 부산의 전근대 역사유적지, 문화유적지를 방문했다. 또 세계평화를 기념하는 '세계평화 피스로드 걷기대회'가 부경대에서 유엔 기념공원까지 부산 재학생과 외국 유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산시 청사 2층 시민광장 앞 진입로에는 전몰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참전국 22개 국기와 UN기를 10월18일부터 24일까지 게양됐다.

제대군인에 감사와 일자리를

10월15일~19일 제대군인주간 선포 ... 취업박람회도



국토방위에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감사하고 제대군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분위 조성을 위해 10월 중 한 주를 지정하여 운영되는 제대군인주간이 올해는 10월15일~19일까지 열렸다.

국가보훈처는 10월15일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제대군인, 제대군인단체, 유관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이낙연 국무총리 기념식을 갖고 이낙연 국무총리 주간 축하와 함께 제대군인주간의 시작을 선포했다.

또 「제대군인 취·창업 수기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

정된 9명의 제대군인과 2018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시상했다.

또 17일과 19일 부산 벡스코와 일산 킨텍스에서 2018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일자리 박람회를 각각 열어 KB국민은행과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취업률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각 지역에서는 제대군인주간 특별사진전, 제대군인 귀농·귀촌 힐링 사전 답사 여행, 제대군인에게 감사 편지 쓰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건국 및 건군 70주년을 기념해 세계 해군과 함께 한국 해군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세계 46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렸다.

'2018 호국의 가을 열린 현충원' 행사개최

국립서울현충원이 10월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2018 호국의 가을 열린 현충원' 행사

를 개최했다. 행사기간 국립서울현충원은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가을 정취 속에 호국영령들의 조국수호의지와 나라사랑 정신을 느끼게 했다.

국민에 신뢰받는 우리의 국군

'명성산 억새꽃 축제' 성공 위해 환경정화

육군1기갑여단 전격 간부봉사단이 10월13일부터 열린 '명성산 억새꽃 축제'의 성공을 위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산정호수와 한탄강 돌래길, 명성산 등산로 일대에서 쓰레기 줍기, 예초작업 등 정화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인근 지역을 쾌적하고 깔끔하게 만들었다. 봉사단원들은 앞으로도 군복 입은 군인들이 국가방위는 물론 지역에서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히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로서 큰 행사를 앞둔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간부봉사단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매결연 요양원 찾아 뮤지컬 공연

해군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 무기지원대대 장병들이 10월18일 자매결연단체인 평택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원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孝心 큰잔치'를 열어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이날 장병들은 전문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해 틈틈이 갖고 닦은 뮤지컬 공연 '불타는 청춘 일기'를 공연 큰 호응

을 얻었다. 이 뮤지컬은 어르신들이 군대에서 겪었던 즐거운 추억들을 회상하는 이야기다.

장병들은 또 '孝心 큰잔치'에 앞서 미리 노인요양원을 찾아 환경 미화 작업과 사전 봉사 활동을 펼쳐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을 줬다. 장병들은 "부대에서 틈틈이 준비한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면서 "앞으로도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는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촉각책' 제작 체험, 시각장애인 이해

공군작전사령부(이하 '공작사')장병들이 지난 9월부터 평택안중도서관과 협력해 체험형 독서프로그램 중 하나인 '촉각책 만들기' 과정을 운영, 장병들에게 창의적인 독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총 6회로 구성돼 있는 프로그램은 박윤경 북아트연구소 책다움 팸택지회장이 진행하며 장병들은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촉각책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야기 주제 선정과 구성 작업을 시행했다. 각자 완성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촉각책 제작을 완료하면 우수작품은 안중도서관에서 전시한 후 기부할 예정이다.

참가 장병들은 "촉각책 만들기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있었던 장애인식 개선교육에도 참가했다"며 "촉각책을 만들면서 느낀 생각과 교훈을 담아 정성껏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촉각책'은 시각장애인이 사물의 모양과 형태를 인지하도록 돕는 책이다.

가을철 농번기 대민지원

해병대1사단이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10월15일부터 포항시와 연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대한 대민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대민지원은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쓰러진 벼를 세우고 벼 운반과 과수 수확 등의 작업을 돕기 위해 계획됐다. 19일까지 이어진 대민지원에는 일주일간 3200여명의 장병이 투입됐다. 특히 해병대1사단은 부대 임무나 교육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손 돕기를 진행했으며, 다양한 종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병들에게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대민지원에 참여한 이상혁 장병들은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내 고장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돼서 기쁘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해병대답게 어떤 일이든 정성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향군, 영덕군 향군과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세탁봉사, 도시락 지원 등 피해 최소화 위해 최선



수해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북 향군과 영덕군 향군회원

경상북도 향군(회장대행 양정석)이 10월10일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덕군을 찾아 수해 복구활동을 전개했다.

도회 임직원 및 영덕군 향군 회원 등 20명은 이날 피해가 집중된 강구시장과 축산면 주민들을 위로하고 세탁봉사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수해로 인해 진흙 등으로 뒤덮인 상가를 찾아 이불, 피복 등 세탁물 세척 작업을 실시하고 봉사요원들에게 필요한 도시락과 생수를 지원했다.

양정석 경북향군 회장 대행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우리의 정성이 피해복구를 위해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 향군(회장 김근태)은 10월7일부터 10일까지 남정면, 강구면, 축산면 등 피해지역을 찾아 복구 지원으로 재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향군 여성회, 향작사 방문

여군 역할 증대, 국가에 큰 기여할 것



향군 여성회(회장 추순삼)가 10월10일 경기도 이천 소재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이하 향작사)를 견학하고 안보의식을 다졌다.

여성회는 이날 '지상전의 승리를 하늘에서'를 주제로 한 향작사의 부대소개 동영상 시청하면서 군용헬기 보유 현황으로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육군 항공의 위상을 몸소 느꼈다. 아울러 향작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헬기 종류와 제원 등을 소개받으며 한때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으로서 언제나 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다짐했다.

허건영 향작사령관은 향군 여성회원들을 반가이 맞이하며 "군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군의 모습에 걸맞게 앞으로 여군들이 국가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강선영 향작사 참모장(준장, 여군 35기)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강 참모장은 최초 항공대대장, 최초 항공단장 등 여러 분야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문산 일대 안보전적지 견학, 학부모와 함께하는 안보현장교육

대전·충남 향군

대전·충남 향군(회장직무대리 박재운)은 10월23일 충청남도 각 시·군에 거주하는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명을 초청하여 함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소재한 임진각과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견학하고 분단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기렸다.



실을 직시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기렸다.

독일 향군, 방한 ... 안보현장 견학, 병영체험

발전된 조국, 자랑스러워 ... 동포사회 구심점 다짐



이순신장군 광장을 찾은 독일 향군회원

독일 향군(회장 유상근)회원들이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6일간 한국을 방문, 고성 통일전망대,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낙동강승전기념관, 전남 이순신장군 광장, 순천 3.1운동 기념탑 등 전국 각지의 안보현장을 둘러보고 호국의식을 다졌다.

70년대 과독광부로 조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던 유상근 회장은 "전국을 돌며 우리 조국의 발전된 모

습을 보니 70년대 고생했던 기억은 없어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며 "조국의 발전을 위해 또 튼튼한 안보를 위해 향군 독일지회가 동포사회에서 구심점이 되어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향군회원들은 안보현장 견학 이외에도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각종 현대화된 병영시설과 첨단 장비를 견학하는 병영체험도 진행했다.

<2018년 안보활동 추진 사례 소감문 우수작>

트럼프 환영·남북정상회담 성공지지 재향군인회 인식 제고 시키는 마중물

올해 10월이면 사무국장의 임무를 수행한지 3년이 된다. 처음에는 업무에 대한 어려움 보다는 재향군인회라는 단체에 대한 주변의 왜곡된 시선과 무지에서 오는 눈총에 더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과연 재향군인회가 보수단체인가? 스스로 자문해 보았지만 나조차도 어떤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혼란했던 순간이 있었다. 재향군인회의 대다수의 회원조차도 향군이 보수단체로 알고 있을 정도라면 그동안 우리의 활동이 어떻게 비춰졌을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우리 주변의 안보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최대의 과제라는 점에서 공감하며, 이를 위해서 회원 모두가 재향군인회 정체성을 자각하고 활동해야 한다.

각종 안보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재향군인회도 각종 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안보에는 어떠한 정치적 논쟁과 사상적 논쟁 또한 있을 수 없다.

본회에서 하달된 2018년 안보교육활동 지침은 향후 각 시군구회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적도를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생각된다.

군회 안보활동은 본회에서 지시된 2018년 하반기 안보교육활동 시행 지침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 가지 원칙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었다.

첫째, 군회 임직원부터 명확한 안보활동 지침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둘째, 읍면 임직원으로 확산 교육하며, 읍면 단위 회의 시 순회 교육한다.

셋째, 회원들과의 만남과 군민대상으로 재향군인회에 대한 인식을 변화 시킨다.

이러한 원칙을 두고 군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안보활동의 범위는 군내 회원과 군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보교육

의 확산이라고 생각하여, 안보교육 및 활동에 대한 계획을 군회 차원에 맞게 수립했다. 이때 가장 먼저 대내적으로는 군회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대의원까지의 확산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나아가 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군회 차원에서 안보활동은 곧 재향군인회의 대외적 이미지와 연결되며 군민들에게 올바른 안보상황과 정부의 안보정책을 바로 알리는데 향군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보상황과 정부 안보정책 바로 알려야

재향군인회라는 단체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신뢰를 받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임을 생각해 볼 때, 최근에 보여준 재향군인회의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단체로서의 활동, 즉 미 대통령 환영, 남북정상회담 성공지지 등은 군민들에게 향군의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호국안보활동, 안보의식 고취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향군의 정체성 정립과 새로운 차원의 안보활동을 시행하는 시점에서 회원 개개인이 스스로 재향군인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조직이 움직이는 시군구회의 활동은 더욱 역동적이어야 한다. 재향군인회의 과거 혼란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회원 한 명 한 명을 이해시키고 정확하게 본회의 지침을 전파할 때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2천만의 예비회원이 기다리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향군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이를 뒷받침하는 안보활동을 강력하게 시행하였으면 한다.



김한수
충남 금산군 향군 사무국장

향군역사 바로알기 ②

향군의 명칭변천과 조직 정착과정

재향군인회 창설 66주년을 맞아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향군의 미래를 위해 향군 역사 바로 알기 코너를 신설, 향군이 걸어왔던 길을 재조명 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1952년 2월 1일 임시 수도 부산에서 창설되었다. 동아극장에서 열린 창설식에는 허정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당시 국방부 병무국장(지금의 동원국장)이던 백흥석 육군준장이 초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향군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향군의 첫 조직은 의결기구로 이사회(12인)를 두고 회장, 부회장(2인), 사무국장, 감찰부, 교도부, 총무부로 단출하게 출발하였다. 예하지회는 1952년 3월 15일 총남지부를 시작으로 4월 15일까지 전국 시도지부가 결성되고 이어 6월 30일에는 읍면동 직장에 이르기까지 1940개의 분회가 조직되어 명실공히 전국조직으로의 면모를 갖추었다.

제대장병보도회에서 재향군인회로

명칭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1953년 10월 8일 향군의 주관청인 국방부는 향군을 순수 민간단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인가하면서 명칭을 '사단법인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로 개칭하였다. 그후 1953년 7월 20일 휴전 막바지에 휴전협정 이후 국내상황에 대처하기위해 대한청년단, 애국참전동지연맹 등 유사향군단체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각기 정치 세력화하여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급기야 이승만 대통령은 1955년 4월 28일 이들 조직의 해체명령을 하달하였으나 반발이 만만

치 안차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결국 1956년 12월 10일 '대한상무회'로 통합 발족하였다. 대한상무회로 통합하여 발족은 되었지만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어야 했다.

이 때문에 대한상무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4.19혁명을 계기로 다시 조직을 재정비하여 외국의 제대군인단체의 명칭을 참고하여 1960년 5월 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명칭을 다시 변경하였다.

1960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법 공포

새롭게 출발한 향군은 1960년 6월 10일 본회에서 지회장단 회의를 갖고 "제대 장병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치적 종파적 행동을 단호히 배격한다."는 건의문을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1961년 5월 10일 최초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법이 법률 제617호로 공포되었다. 이 회법에는 본회의 설립 목적과 정관을 비롯해 사업내역, 조직 등에 관한 원칙, 의결 및 집행기관과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회법 제정으로 본회는 국내의 유일한 사단법인 향군단체로 그 임지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기쁨도 잠시 1961년 5월 16일 5.16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포고문 제6호에 의거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가 해체되었다. 그러나 향군은 당

국의 배려로 다시 재건을 추진하여 1961년 11월 20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12월 12일 7개월간의 공백기를 끝내고 새로운 향군조직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다.

본회 재건이후 6개월 만에 지방조직까지 완전하게 구성되자 향군의 영구 발전을 위해 각종 이념지표 제정을 추진하여 향군 창설 10년만인 1962년 5월 11일 제1 먼저 '향군의 길'이 5개항으로 제정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우리는 애국의 선봉이다. 반공과 국제유대 우리가 실천한다. ② 우리는 국가의 간성이다. 건설과 향토방위 우리가 수행한다. ③ 우리는 새나라 청년이다. 질서와 민족기풍 우리가 확립한다. ④ 우리는 민족의 중견이다. 부흥과 빈곤타파 우리가 추진한다. ⑤ 우리는 국민의 핵심이다. 자유와 국토통일 우리가 성취한다. 로 되어 있다. 이 '향군의 길'은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1973년 2월 20일 1차, 1983년 2월 17일 2차 개정을 거쳐 1990년대 초 까지 사용되어 오다 '향군의 다짐'으로 변경되어 향군의 실천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61년 세계재향군인연맹(WVF) 가입

또 향군은 1961년 5월 8일 세계재향군인연맹(WVF)에 가입하였으며 가입과 동시에 이사국이 되어 당당하게 세계 속의 향군으로 활동무대를 넓히고 위상도 높아졌다. 그리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와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달성될 때 까지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홍보실>



향군, 미래에셋대우와 업무협약 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는 10월18일 미래에셋대우(주)와 포시즌 호텔에서 다각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제휴(MOU)협약을 체결했다.

'육탄 3용사' 안영권 하사 흉상 제막식

전북 김제시 향군, 산화 66주기 맞아 추모행사도



전북 김제시 향군은 10월12일 한국전쟁 때 적진에서 산화한 육탄3용사 안영권 하사 산화 66주기를 맞아 금산사 입구 전공 기념비 앞에서 흉상 제막식과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김제 금산면 출신인 안 하사는 1952년 10월 12일 백마고지전투에서 TNT, 수류탄, 박격포탄을 몸에 묶고 적진에 뛰어들어 산화

한 '육탄 3용사' 중 한 명이다. 한국전쟁 최대 격전 중 하나인 이 전투에서 육탄 돌격을 결행한 3용사는 오늘날 '백마 3군신'으로 불리고 있다.

박영봉 김제시 향군회장은 "안영권 하사의 명복을 빌며 슬픔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에게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향군, 다케시마의 날 지정 철회 촉구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독도 수호단 발대식



경기 성남시 향군(회장 우건식)은 10월25일 성남시 수정구 소재 보건소 내 1층 대강당에서 일본에서 제정한 독도의 날 규탄 및 독도 수호단 발대식을 열고 일본 정부에 다케시마의 날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우건식 회장은 "총칼을 들고 남의 나라 영토를 넘어야만 침략이 아니며 남의 나라 땅을 짓밟

고 노력질을 해야만 범죄가 아니다"라며 "남의 나라 땅 영토를 제 땅이라고 기를 쓰며 가짜 문서를 만들어 제 것인 양 행세하는 날강도 같은 일본이야말로 해적 떼이며 국제 침략자이자 범죄자"라고 규탄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일본은 도쿄 한복판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설치했다"고 비난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향군 전용묘역 특별 분양...향군 명예 고양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최근 분당 영산추모공원 '휴'와 향군전용묘역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봉안시설 3,000기와 수목장시설인 소나무묘역 89주를 제공받아 재향군인회 및 상조회원을 위한 특별 분양을 진행 중이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향군전용묘역 안장대상자를 위한 분양가 할인 제공, 묘역 전용 안내표지석 및 구조물 설치, 향군상

조회 주도의 묘역 유지 관리 등의 특전을 제공해 특별함을 더했다.

또한 국가 유공자를 위한 무상 임시 안치시설을 설치해 국가유공자의 영혼은 안장 심사기간 동안 향군전용묘역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향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향군전용묘역 조성으로 국립묘지와 호국원 안장

제의 대상 향군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미 서부지회 등 전 해외 지회 교포 희망자, 친목·안보단체 회원들도 향군전용묘역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고 향군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 구리시 향군, '청소년 안보 골든벨' 행사

6·25 주제 특강 후 퀴즈 형식으로 진행... 안보관 고양



경기도 구리시 향군(회장 임태전)이 10월19일 삼육중학교와 구리중학교 2개 학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청소년 안보 골든벨'을 개최했다.

송완섭 예비역 장군의 안보 특강 '잊지 말자! 6·25 전쟁'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6·25 전쟁의 실상과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됐다.

이어 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최윤정 아나운서의 사

회로 안보 골든벨이 진행됐다.

구리시 향군은 OX 퀴즈를 비롯하여 다양한 퀴즈 형식을 통해 1등부터 5등까지 성적 우수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임태전 회장은 "이번 행사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6·25 전쟁의 참상을 상기시키고, 올바른 안보관을 심어주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며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전파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 향군, 재해구호 봉사단 창단

경북 구미시 향군(회장 김원조)은 9월21일 재해구호 봉사단 창단식을 갖고 향군임원으로 구성된 기동봉사단 2개팀 54명과 여성회 임원으로 구성된 여성봉사단 2개팀 50명 등 총 107명으로 봉사단을 편성했다.

이로써 구미시 향군은 지역 내 재난, 재해발생시 전문 구조영역을 제외한 긴급구호물품 지급, 급식지원, 재난현장 정리 및 주거환

경 개선, 노약자 분리 및 이송, 주민 돌봄 등 구호영역의 범위 내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 조직적이고 기능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구미시 향군은 유관 기관과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습을 통해 구호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향군은 지난 7월2일 전국

구호역량 강화, 조직적이고 기능적인 봉사 전개



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재난과 재해발생시 상호 협력을 통하여 구호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바 있다.

충남 당진 향군, 항일역사문화 탐방

충남 당진시 향군은 10월1일 3박 4일간 상해와 항주를 방문, 대한독립운동과 항일역사문화 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상해 임시정부청사 100주년과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근대사에서 민족의 큰 수난과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과 역사의 의미를 간접 체험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확고한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순순원 당진시 향군회장은 "그동안 추진하고 탐방했던 견학지와 달리 상해와 항주 견학을 통해 근대사의 올바른 역사관과 호국선열의 애국애족 정신을 본받아 재향군인회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일역사문화 탐방에 참여한 회원들은 "한국인으로 뜨거운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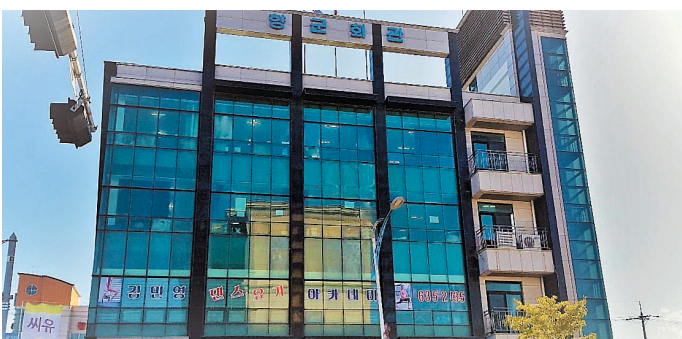
독립선열의 숭고한 정신 본받을 것



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독립선열의 정신을 본받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위기 극복의 첨병 / 강원도 속초시 향군

발상 전환으로 새 수익 모델 창출, 재정자립 앞당겨



속초시 향군회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요건인 자생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회 활성화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 향군(회장 서승대)을 찾았다. 지역 모범단체로 꾸준한 안보활동과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던 속초시 향군은 그간 속초시로부터 재정 자립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 획득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보조금 확대, 원활한 회 운영

그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운영비 1천100만원을 확보하여 직원 인건비를 보조하고 각종 공과금 지출에 활용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1,67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내년에는 1,990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8개 동 향군, 여성회, 청년단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각 2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받아 산하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안보현장 견학 및 안보강좌, 6·25기념식 및 향군의 날 행사, 보훈행사 등을 위한 사업비 4,700여만 원을 확보해 행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속초시 향군이 올해 속초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6천만 원이 넘는다. 이는 속초시와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해 온 서승대 회장을 비롯한 속초시 향군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다.

대강당, 회의실 임대 수익모델 창출

속초시 향군은 자체 수익사업

대강당, 회의실 한시적 임대, 공익 활동하며 수익 확보
회관증축 통해 여성회, 청년단 등 사무실 확보... 활동 지원

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수익 창출을 위해 향군회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먼저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3층 대강당과 4층 회의실을 한시적으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속초시 향군회관에는 아름다운 노래선율이 흘러나온다. 이 시간 속초시포네오 합창단이 3층 대강당을 임대하여 연습을 한다. 작은 금액이지만 약간의 수익과 함께 속초시 향군의 이미지가 고양에 기여하고 있다. 향군 행사에 동참하는 것은 답이다.

그리고 지역 분양업체인 에스알파트너스에 6개월간 한시 임대하여 분양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속초시 향군은 600여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4층 중회의실에는 매주 목요일 저녁 만학도들의 학구열이 넘쳐난다.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이 회의실을 임대해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도 속초시 향군은 200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발상의 전환이다. 향군회관의 시설물로 당연히 설치되어야 했지만 1년 중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강당과 회의실을 부분 임대한다는 생각은 쉽게 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로써 속초시 향군은 1층 편의점과 2층 요가학원 등을 포함해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창출, 풍족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

회관 증축위해 회무 역량 집중

나아가 속초시 향군은 기존 4층의 향군회관을 5층으로 증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증축을 통해 여성회, 청년단, 동향군 사무실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속초시 향군은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과 속초시장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올해 서승대 회장이 직접 방문, 회관 증축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회관 건립 당시 5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 원활한 증축을 위한 조건들은 충족되어 있다.

회관 증축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되고 나면 속초시 향군은 추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한 회 재정 자립은 한 걸음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재정자립을 위한 회무를 집중하고 있는 속초시 향군은 서승대 회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하나로 뭉쳐 안보단체 향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강원대 경영대학원 수업.

각급회 소식 (9월21일 ~ 10월20일)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9월28일 향군상조회와 수익 사업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갖고 향군전용 크루즈여행 공동상품 개발 및 서비스 진행. 여성회는 10월5일 서울역 무료 급식터에서 노숙자 점심 배식 및 설거지, 청소 등 사랑의 빨간 밥차 봉사활동 전개.

성동 광진구회 : 10월6일 구의 1동 새마을 금고 회의실에서 관내 6·25 참전유공자 회원들을 초청, 햅쌀 전달.

노원구회 : 여성회는 10월6일 상계3,4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 전개.

구로구회 : 10월17일 거리공원 사거리에서 기초질서 및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

부산시 향군



부산시회 : 10월17일 다대포 물운대 일대 전적지 탐방 및 단합행사를 갖고 안보의식 고취와 회원단합 도모.



영도구회 : 10월11일 군 인사, 유가족,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도유격부대 추모식 거행.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10월4일 제2작전사령부 주관 군악연주회 참석. 10월11일 포항함과 학도 의용군전승기념관 등 안보현장 견학 실시. 10월12일 제9회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참석.

수성구회 : 10월4일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린 제2작전사령부 주관 군악연주회 참석.

서구회 : 10월20일 산청호국원, 거제 포로수용소 등 안보현장견학 실시.

남구회 : 10월 10일 장애인재활단체인 비콘에서 급식지원 봉사.

북구회 : 9월27일 시회 안보부장을 초청,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안보교육.

달성군회 : 현풍면 소재 한사랑마을에서

지체장애우 산책 및 식사 지원 봉사.



동구회 : 9월27일 일출회 식당에서 관내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들을 모시고 위로 행사 개최. 10월12일 제6회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 행사 참석,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및 대형평화 체험관과 야간별빛정원, 부교, 최신장비전시 등 체험.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10월5일 제물포고등학교 주니어 ROTC 창단식 행사 참석. 여성회는 10월10일 경기도 가평에 있는 영연방전적기념비를 찾아 참배하고 주변정화활동 실시.



계양구회 : 9월21일 효성동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80여명과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등을 견학, 안보의식 고취. 10월9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일원에서 개최된 송도국제 마라톤대회 참가.

남동구회 : 여성회는 10월15일 회 발전방안 간담회 및 남동구장애인 복지관 자원봉사 실시.



동구회 : 10월16일, 17일 연평도를 방문, 연평도 포격 지역을 견학하고 조은희 탈북 강사를 초청, 안보교육 실시. 10월19일 송림초등학생들을 초청,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을 찾아 후계세대 안보의식 교육.

경기도 향군

수원시회 : 여성회는 10월15일 중서부 전선 태풍 전망대일대 안보현장 견학행사를 갖고 안보의식 고취.

수원시 매탄2동회 : 김성기 회장은 10월16일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부천시회 : 10월5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군 장비 견학 및 병영훈련 체험, 안보의식 고취 및 친목도모.



평택시회 : 10월12일 임직원,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소산성, 궁남지 등 부여 백제문화단지 안보현장견학 실시.

남양주시회 : 10월16일 경기도 종합사격장에서 안보 교육 및 권총, 클레이 사격 등 체험 안보교육 실시.

동두천시회 : 10월18일 도 안보부장을 초청,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독립투사 이야기' 주제로 안보 강연 실시.

강원도 향군



양구군회 : 10월7일 양구 대우산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 장병들을 격려.

인제군회 : 9월27일 인제 원대리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 장병들을 격려.



동해시회 : 10월15일 동해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2018년 3분기 동해시 으뜸 봉사상' 시상식에서 불우이웃돕기 캠페인 전개와 후원금 전달, 관내 관광지 및 문화재 주변 환경정화, 산불예방활동,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 다방면에서 봉사·지원 활동을 펼친 공로로 단체부문 수상.

충청북도 향군

충주시회 : 여성회는 10월9일 제천 한방 바이오박람회 행사장을 방문, 한방체험 등 회원 친목행사가 가져.

보은군회 : 10월12일 '2018 보은 대추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참전노병의 날 행사 주관. 청년단은 10월6일 탄부면 석화리의 김영

배(74)옹의 집을 찾아 집수리봉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청주시회 : 10월9일, 10일 시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울릉도 및 독도 안보현장 견학.

영동군 상촌면회 : 9월28일 철곡 호국평화 기념관, 영덕 장사상륙작전전적지 등 안보전적지를 둘러보고 안보의식 고취.



증평군회 : 10월4일부터 10월7일까지 개최된 '2018 증평인삼골 축제' 기간에 '나라사랑 앞섬이' 참전유공자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버스 운영.

제천시회 : 10월15일 강원도 양양 6.25 전 전적비, 주문진일대 안보전적지 견학.

대전 충남 향군



대전 동구회 : 10월12일 최봉안 안보교수를 초청, '북한의 변화와 사회적 국익에 기반한 국가안보'를 주제로 안보강연.



금산군회 : 10월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지역 자매부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 10월5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37회 인삼축제 기간 중 자원봉사.



보령시회 : 여성회는 10월10일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유적지 안보 현장 견학.

천안시회 : 10월13일 안보 및 역사문화

<8면에 이어>
체험 행사 일환으로 윤봉길의사 기념관과 한용운 선생의 생가방문.

전라북도 향군



전주시회 : 여성회는 10월1일 남원 만인의 총을 방문, 호국의지 다져.

김제시회 : 10월5일부터 9일까지 지평선 축제기간동안 모유 수유방을 운영, 산모와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

군산시회 : 10월6일 김관영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발전 방안 등을 토의. 10월9일 군산내항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0회 진포대첩 재현 행사 참석. 10월17일 월명공원 일대에서 가을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

정읍시회 : 여성회는 10월4일 연지아트홀에서 진행된 제1회 전북장애인합창대회에서 행사안내 봉사활동.



익산시회 : 한완수 회장이 10월12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봉송 주자 참여. 또 이날 백제왕도 문화대축전 무왕행차 거리 퍼레이드에 참가, 영등 시민공원에서 중앙체육공원까지 행진.

무주군회 : 10월17일 경북 영덕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을 견학하고 안보의식 함양.

광주 전남 향군

강진군회 : 9월30일 전라 병영성에서 대구 달서구 향군회원들을 초청하여 안보현장 견학을 겸한 영호남 교류행사 개최.

경상북도 향군

경북도회 : 10월19일 시 군 부회장들을 초청, 대전현충원 천안함, 연평도 해전 전사

순직 장병 참배 및 계룡대 방문 등을 통해 안보의식 고양.



안동시회 : 10월6일 260부대 장병, 안동대 학군단후보생, 이사회, 농협주부합창단, 11사단 전우회 등 10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안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군가 부르기 대회 개최. 10월4일 전북 김제시 향군회원들을 초청, 안동국제관광재단일원에서 영·호남 화합 친선교류 행사 가져. 10월2일 경안여중 학생과 교사들을 초청, 전쟁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일대 안보현장견학.

영주시회 : 9월28일 오후2시 WCC경북전문대학교 VR강의실에서 '경북의 훈' 나라사랑 통일안보교육 실시. 10월11일 향군회관에서 제3260부대 대대장과의 간담회.

상주시회 : 10월1일 화령지구전승기념관 야외정원에서 열린 전승기념행사와 6·25노래비 제막식 참석.

영천시회 : 10월1일 정현대 식육식당에서 지역 예비군 지휘관을 초청하여 위로행사를 갖고 노고 격려.



구미시회 : 10월11일, 12일 울릉도 탐방 및 국토수호 다짐 대회 개최.

포항시회 : 10월18일, 19일 전주시 향군을 초청, 파티움하우스 웨딩홀에서 영호남 국민화합행사.

영덕군회 : 10월17일 전북 장수군 향군을 초청하여 영호남 기념행사를 갖고 탈북민 안보교육 및 해병대 1사단 부대견학 행사 가져. 10월17일 영덕군청에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위한 성금 기탁. 10월6일부터 12일까지 전국재해복구협회와 함께 태풍피해 복구활동.

문경시회 : 여성회는 10월17일 문경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음식 및 배식, 설거지 등 봉사활동 실시.

청송군회 : 10월17일 무주군 향군을 초

청, 회와 주왕산 온천 호텔에서 영호남 교류 행사를 갖고 친목과 화합도모.

경남 울산 향군



양산시회 : 여성회는 9월29일 매달 중증장애인센터 늘 푸른집을 방문하여 목욕봉사를 실시한 공로로 2018년 우수봉사단체로 선정.



하동군회 : 9월29일 여성회와 청소년안보기동대와 함께 약양면 지리산 항일투사 기념탑과 충훈탑, 화개면 화개장터 3.1운동 기념비와 학도병 전적지를 돌아보며 호국의지 다져.

하동군 진교면회 : 9월27일 '일일차집' 수익금과 성금으로 마련한 3.2kg들이 햄살 480대를 관내 경로당에 기탁.

함안군회 : 9월22일 함안공설운동장에서 열린 함안군 가족사랑 건강걷기 대회 봉사활동 전개.

통영시회 : 여성회는 10월8, 9일 대전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 기려.

의령군회 : 10월4일 지정면 바람소리 언덕에서 지정면 6.25참전 기념비 추모제.

함양군회 : 10월11일, 12일 울진원자력전시관, 평화공원, 낙동강승전기념관 등 안보현장 견학 실시. 10월15일 제일장례식장과 향군우대가맹점 협약식을 갖고 회원들에게 장례 편의 제공.

거제시회 : 10월11일 동부면 참 조은마을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친목도모.

진주시회 : 10월11일 경남서부보훈지청에서 개최하는 전후세대와 함께하는 전적지 순례 행사 참가.

산청군회 : 여성회는 10월9일 한방약초 축제 행사기간 중 봉사활동 펼쳐.

김해시회 : 청년단은 10월20일 지심도왕

거제포로수용소 탐방 등 안보현장 견학 실시.

창원 마산 합포구회 : 10월13일 마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갖고, 회원 화합 및 친목도모.

울산 중구회 : 10월2일 동천강 주변 일대에서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천변 환경정화 활동 실시.

울산 남구회 : 여성회는 10월2일 울산시 노인의 날 행사 봉사활동 실시. 10월13일 구민 한마음대회 참석.



울산 울주군회 : 여성회는 10월10일 울주 세계시민교육 행사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텀블러 제작.

제주도 향군



제주시회 : 여성회는 10월5일 국제가정문화원을 방문, 사랑의 봉사활동 실시.



서귀포시회 : 10월1일 올레6코스 검은여해안에서 버려진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올레 환경 클린운동 전개. 10월13일 강남의원의 협조를 받아 의료시설이 미진한 가과도를 방문, 노인복지회관에서 지역주민 및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검진 봉사활동.

제주시 애월읍회 : 9월30일 광령1리 소재 공설묘지 묘역 및 진입로 주변 풀 베기 봉사활동 실시.

연평도 방문, 평화·안보 소중함 배워

인천 옹진군 향군, 연평안보수련원 교육과정 수료

인천 옹진군 향군이 10월18일, 19일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에서 평화 안보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연평 해전과 포격 도발 등 아픔이 가득한 섬 연평도의 연평안보수련원은 전 국민에게 안보의식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이날 안보 교육에 참여한 옹진군 향군회

원들은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포탄을 맞은 주택을 방문, 현장 체험과 함께 탈북 전문 강사가 들려주는 북한 이야기를 들으며 평화의 소중함을 배웠다. 또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섬 주민으로부터 연평도가 가진 아픔을 듣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연평안보수련원은 서해바다의 중요성



을 알리고 통일을 강조하는 다양한 안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피해 받은 건물을 그대

로 보존하고 있어 생생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현재 5개 단체 200여명이 방문을 예약한 상태다.

친목단체 활동

전몰갑종장교 합동추모제



갑종장교전우회(회장 김영갑)는 10월19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갑종장교 68년 전몰갑종장교 호국영령 합동추모제를 거행했다.

다부동 전투 구국영령 추모행사



다부동전투구국용사회(회장 박형수)는 10월12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제68주기 다부동전투 구국영령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기계·안강전투 전승 기념식



백골전우회(회장 이장호)는 10월10일 경북 포항시 기계면 성계리 광장 적전비에서 기계·안강전투 전승 기념식을 거행했다.

백마고지참전영령 추모행사



백마고지참전전우회중앙회(회장 박명호)는 10월16일 백마고지전적비에서 백마고지 참전영령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월남전 전몰장병 추모위령제



월남전참전자회(회장직무대행 서현석)는 10월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2018년도 월남전참전 전몰장병 추모위령제를 거행했다.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육군3사관학교총동문회(회장 정인하)는 10월18일 국방컨벤션에서 육군3사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충용탑 건립 42주년 기념식



육군종합학교전우회(회장 김정규)는 10월22일 이천호국원 충용탑에서 전몰전우추모 및 충용탑 건립 42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자연보호활동



정보동우회(회장 박상수)는 10월10일 서울대공원에서 스리플 등산 및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했다.

호림특수부대 전몰장병위령제



호림안보협의회(회장 황휘성)는 10월15일 국립서울현충원 유격부대전적비앞에서 제69주기 호림특수부대 전몰장병위령제를 거행했다.

6·25참전 희생현우 추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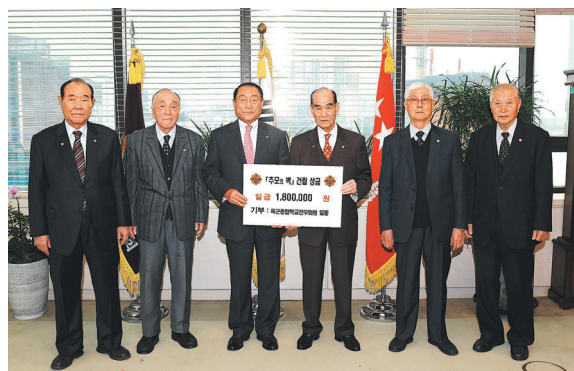


헌병전우회(회장 권영욱)는 10월 19일 3사단 헌병대앞 위령비에서 6·25참전 금화지구 희생현우 추도식을 거행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순)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갑종장교전우회 : 11월1일 3사단 돌격상 앞에서 고 임상택 소령 추모행사. 11월7일 향군본부 중회의실에서 6·25참전 갑종전우회 친교회. 11월27일 향군본부 중회의실에서 70주년 기념사업추진회의.
- ▶학도의용군회 : 11월3일 서울 국립현충원 무명용사탑에서 제62회 전국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
- ▶월남참전자회 : 11월7일 전쟁기념관에서 창립기념일 행사.
- ▶포병전우회 : 11월8일 서울대공원에서 자연보호활동. 11월 22일 춘천에서 역사탐방행사.
-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 11월9일 원주 센츄리 21CC에서 제9회 총동문회장 배골프대회.
- ▶육군종합학교전우회 : 11월13일 전우회 사무실에서 임원 회의.
- ▶육군항공협회 : 11월13일 육군회관에서 정기총회.
- ▶정보동우회 : 11월14일 용산 푸주옥에서 운영위원회의.
- ▶의정총동우회 : 11월16일 육군회관 태극홀에서 정기총회.
- ▶단기부사관총동문회 : 11월16일 국방컨벤션에서 정기총회.
- ▶화학전우회 : 11월29일 육군회관에서 정기총회.
- ▶육군기술행정사관총동문회 : 11월29일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정기총회.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육종전우회, '추모의 벽' 성금 180만원 전달

육군종합학교전우회(회장 김정규)는 10월26일 '추모의 벽' 건립 성금 1차분 180만원을 김진호 회장에게 전달했다. 김정규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6.25 전쟁이 끝난지 70여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누란의 위기에 처한 자유 우방을 지키기 위해 주저없이 참전했다 희생된 미군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종전우회는 10월22일 이천호국원에서 가진 육종전우 추모식 현장에서 모금을 진행, 90대 회원들을 물론 자문위원, 후원회 등이 적극 동참했다고 알려졌다. 육종전우회는 향군이 10월15일부터 본격적으로 '추모의 벽' 건립 모금 운동을 전개한 이후 친목단체 중 처음으로 성금을 기탁했다.

향군장학기금

※ 기간 : 9월 26일 ~ 10월 25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개인

- 산하업체 (주)향우산업 대표이사 허재수 10(60)
- 일반회원 JSA 경비대대 이한수 1(10)
- 일반회원 (주)대창농축 오승훈 1(28)
- 일반회원 대구시시설관리공단 신현우 1(28)
- 일반회원 동국대학교부속중학교 교사 이미래 1(25)
- 일반회원 우리은행 태릉지점 신현정 2(14)

▶ 정기기부

- 경기도 양주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오상익 3(198)
- 권율부대 선거이 연대 강모아 1(40)
- 일반회원 이정호 1(249)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재향군인신문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3년 12월 5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757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LS타워(성수동 1가)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행정보

11월에 가볼만한 곳

순천만갈대축제 2018

대한민국의 대표 생태관광지 순천만 갈대 축제가 11월2일부터 4일까지 순천만, 동천 일원에서 열린다.

순천만은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보고이며 봄에는 철새의 비상, 여름철에는 짙은 갈대밭, 가을에는 칠면초와 갈대를 겨울에는 흑두루미를 비롯하여 200여 종의 철새를 만날 수 있는 생태관광지다. 특히 가을에 펼쳐지는 황금빛 갈대 물결과 수많은 철새가 이곳을 찾으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순천만은 가을에 꼭 가봐야 할 필수 관광지 중의 첫 번째로 손꼽힌다.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Tel. 061-749-4221~3〉

포항구룡포과메기축제 2018

포항지역 대표 먹거리인 과메기 축제가 11월10일, 11일 구룡포 과메기 문화거리(아라광장)에서 개최된다. 구룡포 특산물 과메기 축제는 포항시 지역특산물인 과메기의 원조마을로 구룡포 지역 특산물인 과메기, 대게, 오징어 등을 외지인에게 널리 홍보하고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고유의 전통축제 및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과메기 축제에서 민속놀이, 국악공연, 농악놀이, 특산물(오징어,과메기) 경연대회, 무료시식회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다.

〈과메기영어법인조합 054-276-0760〉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2018

‘2018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행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새들의 휴식지 금강호 일원의 군산 금강철새조망대, 금강습지생태공원 및 서천 조류생태전시관에서 11월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다. 이 행사는 군산시와 서천군에서 상생과 협력을 위해 공동 진행하는 두 번째 행사로 군산시에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열린다. 군산시와 서천군의 각 행사장에서는 생태설명회, 세계음식 여행, 벌룬·버블쇼, 마술쇼, 철새 골든벨, 철새그림 그리기 대회, 철새 먹이주기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군산·서천철새여행행사추진위원회
Tel. 063-454-5684, 041-950-4091〉

서울 빛초롱 축제

서울 빛초롱 축제가 11월2일부터 18일까지 청계천 청계광장에서 수표교까지 1.2Km 구간에서 열린다.

“서울의 꿈, 빛으로 흐른다.”를 주제로 지난 9년간 서울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담은 이 행사는 올해10주년을 맞는다.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의 도시부터 대중문화와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친 근현대의 추억들, 그리고 풍요로움을 소망하며 흥겨운 잔치를 열던 600년전 조선시대 사람들의 풍경까지, 서울의 어제와 오늘을 빛내고 내일을 열 우리 모두의 꿈을 함께 나누는 축제가 될 것이다.

〈서울관광재단 Tel. 02-2133-0910〉



순천만갈대축제 2018



포항구룡포과메기축제 2018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2018



서울 빛초롱 축제

전우여! 어디에 ...

• 1962년부터 1972년까지 연화봉 중계소 및 안동 단말소에서 복무했던 김부중(예 중사)씨가 1969년 통신병으로 같이 근무했던 전문선, 김상진 님을 찾습니다.

전문선 하사는 육군통신학교 소년병 출신으로 1969년 극초단파 영주 단말소에서 같이 복무했으며 김상진 일병은 1969년 안동

36사단 육군본부 통신대에서 안동단말소로 파견 나왔던 병사였습니다.

〈김부중 : 010-7472-7776〉

• 유성식씨가 1983년8월부터 1985년 10월 경 경기도 포천군 6군단통신대에 근무했던 전우들을 찾습니다. 〈유성식 : 010-9866-0979〉

• 김병식씨가 1974년부터 1976년까지 금

마 제7공수여단 31대에 근무했던 ‘박귀영’ 님을 찾습니다. 〈연락처 : 010-6218-6394〉

• 조상남씨가 1983년 11월, 12월 군대 동기 13보급대 전우 충남 출신 이재천, 김종관, 강기범, 경북 김용우, 안병희, 정동찬, 홍기영, 경남 송상화, 전남 박정인, 서울 안중환, 김수영씨 등을 찾습니다.

〈조성남 : 010-3015-8208〉

재향군인회상조회가 국립묘지에 준한 묘역관리로 고인·유족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안장대상

- 향군임직원 및 향군회원 · 해외교포 중 국내 안장 희망자
- 안보·친목단체 회원 · 재향군인회상조회원

이용특전

- 분양가 할인 제공 · 상조회 주도 묘역 관리



▲야외봉안당 3,000기



▲수목장지(소나무) 89주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6-3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묘역

KOREAN VETERANS ASSOCIATION
MEMORIAL PARK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Veteran's
Sacrifice and Dedication to our Nation.

분양상담
(분당추모공원'휴)
031-762-3000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주)재향군인회상조회 1577-0720 / 02-2218-7141

홈페이지 www.korvafamily.com

안보정세 브리핑 평화협정의 체결과정과 전망 ②

순탄치 않은 평화협정,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평화협정의 당사자에 관해서는 기존에 남북미 평화협정, 남북미중 평화협정, 남북미 평화협정 + 중(보장), 남북 평화협정 + 중미 보장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기존에 북한은 미북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당사자에서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이 정전협정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전쟁의 직접 교전 당사자였으며, 정전체제 유지 및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일방으로서 실질적인 분쟁 당사자의 위치에 있었고, 장래의 교전당사국이 될 수 있으므로, 평화협정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평화협정 당사자

북한과 미국은 교전당사자이자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이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평화협정의 당사자이다.

남북한 주도의 원칙에 따라 미국을 보장자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최근 4·27 정상회담 이후 미북 직접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미국을 당사자가 아닌 보장자 지위로만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미국이 당사자에서 빠진 평화협정은 실효성이 없고, 남북만으로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통한 북한 비핵화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자이긴 하나,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지 않고, 이미 남한과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평화협정 당사자로서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문제도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평화협정은 더욱 더 첨예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며,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응도 협정 당사자 결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평화협정의 법적 절차

평화협정은 조약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국내법적 발효절차로는 헌법 제60조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약에 해당되며, 현행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 법적 성격과 관련한 논쟁 가능성을 상존을 고려하여야 하며, 평화협정에 저촉되는 당사자의 헌법과 관계 법률의 정비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시대에 상응한 법 체계와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적 보장 체계는 유엔 사무국에 조약 등록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협정 발효와 구속력을 보장해야 하며, 북한의 비준절차는 김정은의 결정으로 간단히 해결되지만 한미는 국회와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입장을 달리하는 복잡한 문제가 엮여 있어 비준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평화협정 체결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북한 비핵화, 미북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등에 대한 관계 당사국간 합의 과정이 수반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자국의 이익에 순기능으로 작동되어 지도록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한 협력 구도가 설정되어야 하고, 국제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여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의 역할이 재조정되어 협력기조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화 조치가 반영되어야 하며 남북한의 당사자간 구속력 확보가 평화협정의 성패가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평화협정의 체결은 온 국민의 바람과 그 내용의 방대함,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로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며, 다양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며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사례

다음은 평화협정의 체결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례를 분석해 보면 분쟁 배경 및 연혁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전쟁에 아랍의 협력을 받는 대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아랍국가의

독립을 약속하고 유대인에게도 팔레스타인에서의 유대국가 건설지원 약속으로 1947년 UN이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채택하여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

이에 대한 아랍국가의 반발로 전쟁과 갈등이 격화되어 1차(1948), 2차(1956), 3차(1967), 4차(1973) 중동전쟁 발발하였다. 쟁점 사항으로 동예루살렘의 지위문제,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 문제, 유대인 정착촌 및 팔레스타인 영토에 관한 확정 방안 문제 등이며, 주요 평화협정으로는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수많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나, 평화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2017년 3월 30일,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25년 만에 서안지구에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다시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 사례에서 주는 함의는 평화협정의 체결 자체로 결코 평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북아일랜드의 평화협정 체결 과정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한 부침의 연속으로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존재하고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세력들로 인해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기도 했다. 평화협정은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 체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각 당사자 간 여러 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이 거듭 진행되어야 하는데 분쟁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후로 미루어 결국 타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다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고 이행하기 위한 후속 합의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끊임없는 의견 조율과정과 합의사항의 이행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북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보듯 모든 평화협정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평화협정 사례가 한반도 평화협정에 주는 함의는 첫째, 평화협정 체결 자체보다는 이행과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평화협정은 내전이든 국제전이든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필요조건 역할을 한다고 보면,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부단한 평화의 과정 속에서 분쟁을 최소화하는 장치적 역할 담당하는데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을 어떻게 이행하고 실천하느냐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쟁점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 중요하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평화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 쟁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논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느 정도 진전되느냐에 따라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하나의 평화협정보다 복수의 협정 체결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평화협정 사례의 체결과정을 보면 단순히 하나의 상징적인 평화협정으로 평화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실체인정, 신뢰구축, 제도마련, 이행기구 설치 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이 담긴 여러 가지의 협정이 체결되어 포괄적 형태의 기본적인 평화협정뿐만 아니라 각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실천합의서 형태의 협정 체결을 해야 한다.

넷째, 이행 감시기구 및 제3자의 감독이 필요하다. 평화협정의 규정 사항에 대한 효율적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이행감시기구설치와 함께 이행감시기구의 지속성 보장 및 담보를 위한 제3국 혹은 3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다섯째,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 문제에 대한 집착을 지양해야 한다. 평화협정의 당사자에 집착하기 보다는 여러 당사자들이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의 하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협정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일곱째, 평화협정 체결 이후 내부적 갈등의 치유와 노력의 병행이 필요하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화해, 용서, 치유 등의 관념적 문제의 해결과 노력의 병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 이후의 전망

평화협정 체결 후 예상 시나리오는 첫째, 판문점 및 유엔사 해체 혹은 지위변화가 예상된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 및 관리감독 역할로 변경이 예상되며, 둘째, 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의 지위변경 및 국경화가 필연적인데 현재의 군사분계선이 실질적인 경계 역할에서 남북경계선으로 지위가 변경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관계의 지위변화도 예상된다. 그 동안 남북관계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미수교국 관계의 수준 즉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와 같이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남북교류 촉진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와 대북 제재 완화를 전제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며 상호 협력관계가 될 것이다.

다섯째, 평화협정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안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지역 안보가 안정될 것이며, 지역 군비확장도 억제될 것이며, 특히, 한반도 지역 투자 활성화로 경제발전의 도모가 예상된다.

여섯째, 국내 북한 관련 법률 재정비 및 대북정책의 변화가 요구되어 2국가 2체제 실정에 맞도록 법률정비가 되어야 한다.

일곱째, 국방정책의 변화로는 현재의 육군 집중화 현상이 완화될 것이며, 전선 중심의 방어 전략에서 다각도 방어체제로 다변화 될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동맹과의 관계에서 먼저 주한미군 철수 관련은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대한민국은 평시 국가로 전환되어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유엔사는 지위변경과 역할 전환으로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되지만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둔이므로 평화협정과는 관계가 없다. 일본과 연합국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후에도 주일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중국은 동북아 질서 재편 시 영향력 확대가 우려 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과정 개입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향후 남북 통일시 중국은 한반도의 잠재적 위협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잠재적 위협국인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미동맹 관계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재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국제질서를 감안하여 대북 억지력 위주에서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신 안보전략을 감안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공고화해야 하겠다.

결어

지금까지 평화협정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원론적이지만 내용자체가 무겁고 매우 어려운 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말 같이 쉽지 않다는 것과 매우 복잡한 쟁점이 있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협상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는 난제이다.

평화협정 자체가 다자간 합의와 국제사회로부터 조울을 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긴 호흡으로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료제공 : 호국안보국)